

2010년 벼 재배의향면적 전년보다 9천ha 감소 전망

■ 산지 쌀 가격은 수확기 이후 약보합세 지속

- 산지 벼 가격은 2009년 12월 하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1월 15일 기준 4만 3,990원/40kg으로 전년 동기보다 15.3% 낮고, 12월 대비 1.0% 하락함.
- 산지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이며 2010년 1월 15일 현재 14만 836원/8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13.0% 하락, 12월 대비 0.6% 낮은 수준임.

■ 산지유통업체의 수확기 벼 매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

- 2009년 12월 말 산지유통업체 벼 자체 매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2.8% 감소한 198만 7천 톤으로 집계됨.
- 수확기 들어 전년 적자폭이 큰 산지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벼를 매입하지 않았고, 단경기 벼 가격 상승을 기대한 농가(대농위주)들은 벼 재고(전년대비 39.3%)를 늘린 것으로 나타남.

■ 2010양곡연도 시장공급량은 정부 시장격리로 크게 줄어들 전망

- 2009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.5% 증가한 491만 6천 톤이었음. 이중 정부가 34만 톤을 시장에서 매입함으로써 시장공급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.
- 2010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은 14만 3천원~14만 8천원/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됨. 이는 전년대비 5.7~8.5% 하락한 수준이지만, 2009년산 수확기보다는 0.6~3.7% 높은 수준으로, 2010양곡연도에는 계절진폭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됨.

■ 2010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1.1% 감소한 91만 5천ha 전망

- 2010년산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9천ha 감소한 91만 5천ha로 전망됨.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전년대비 4.6% 감소, 중/중만생종이 0.7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

■ 산지 쌀 가격은 수확기 이후 약보합세 지속

- 추석 이후 산지 벼와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10월 6일 통계청이 예상생산량(468만 2천 톤)을 발표하였다. 정부는 쌀 생산량 중 평년작을 초과한 11만 톤을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으로 시장에서 격리하였다.
- 이러한 조치로 산지 벼 가격은 10월 중순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어 12월 15일까지 4만 4,700원/40kg 수준을 유지하였다. 그러나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불안감이 커진 비RPC농협들이 매입가격보다 낮게 벼를 판매하기 시작하여, 2009년 1월 15일 기준 산지 벼 가격은 4만 3,990원/40kg으로 전년 동기보다 15.3% 낮고, 12월 대비 1.0% 하락하였다.
- 정부가 11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산지에서 예상보다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, 산지 쌀 가격이 상승세로 반등되지는 못하고, 하락세가 둔화되는데 그쳤다. 11월 12일 통계청이 2009년산 쌀 실수확량이 예상생산량보다 많은 491만 6천 톤으로 발표하자, 정부는 추가로 시장에서 23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.
- 연고미 증가와 임도정공장에서 저가로 판매하는 쌀이 많아 쌀 가격이 하락하였다. 더우기 전년에 매출이 크게 감소한 할인점들이 대형구매처인 식자재업체 등에게 쌀 판매를 늘리기 위해 대도시 중도매업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것도 쌀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. 쌀 가격은 1월 15일 기준 14만 836원/80kg으로 전년 동기보다 13.0% 낮고, 12월 대비 0.6% 하락한 수준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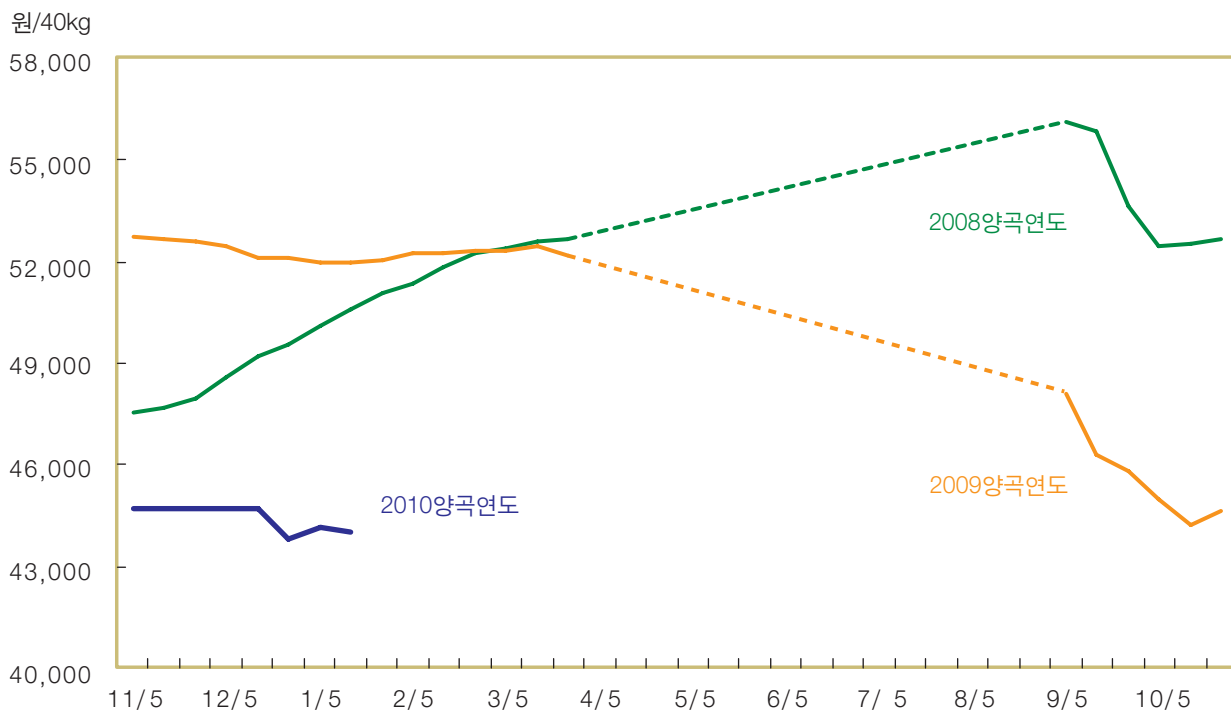
표 1. 전국 쌀 평균 가격

단위: 원/정곡80kg, 원/조곡40kg

		산지 정곡가격	산지 조곡가격
2009양곡연도	11월	161,941	52,679
	12월	162,031	52,221
	수확기(10~12월)	162,424	52,485
	1월 5일	161,992	51,944
	1월 15일	161,792	51,965
2010양곡연도	11월	142,292	44,730
	12월	141,639	44,434
	수확기(11~12월)	142,861	44,598
	1월 5일	140,944	41,131
	1월 15일	140,836	43,990
등락율(%) (1월 15일 기준)	전월대비	-0.6	-1.0
	전년 동기대비	-13.0	-15.3
	수확기대비	-1.4	-1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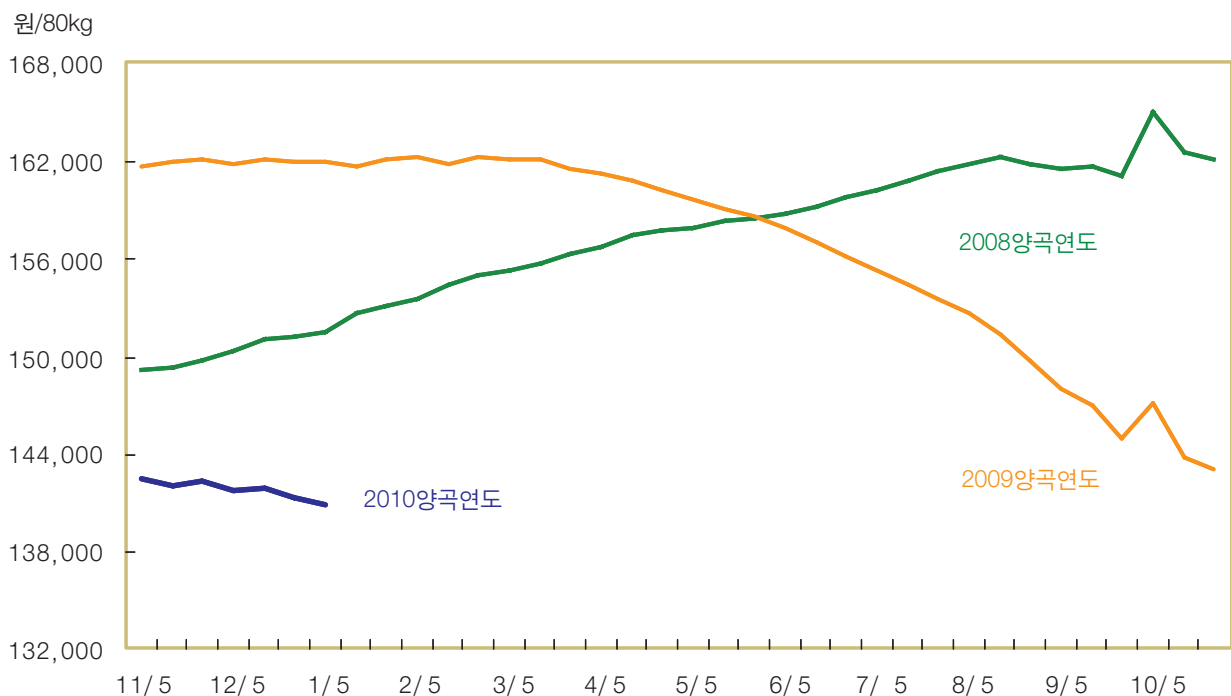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.

그림 1. 전국 평균 산지 조곡가격 추이



자료: 통계청.

그림 2. 전국 평균 산지 정곡가격 추이



자료: 통계청.



■ 2009년 12월 30일 기준 산지유통업체 벼 자체 매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2.8% 감소

- 2009년 12월 30일까지 산지유통업체들의 2009년산 벼 자체매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2.8% 감소한 198만 7천 톤으로 집계되었다. 업체별 매입실적을 보면, 농협RPC는 전년 동기대비 2.9% 증가한 98만 7천 톤인 반면, 비RPC농협과 민간RPC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.3%, 3.3% 감소한 각각 47만 7천 톤, 52만 1천 톤으로 조사되었다.
- 산지유통업체들의 벼 자체 매입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,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이 하락세에서 반등되지 못하자,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. 특히 전년에 적자폭이 큰 비RPC농협들은 매입을 주저하였고, 민간RPC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다. 또한, 수확기 가격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낮게 형성되었고, 정부의 시장격리로 단정기에 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농가(주로 대농)들이 수확기에 벼를 팔지 않고 재고로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표 2. 수확기 벼 매입 실적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('09. 12. 30)

단위: 천 톤/정곡

	2008년	2009년	증감률(%)	계획대비(%)
공공비축미	400	365	-8.8	98.6
- 포대벼	360	330	-8.3	100.0
- 산물벼	40	35	-12.5	87.2
시장격리량	0	286		84.1
RPC자체매입	2,044	1,987	-2.8	85.3
- 농협RPC	961	989	2.9	93.7
- 비RPC농협	544	477	-12.3	86.4
- 민간RPC	539	521	-3.3	72.1
전체	2,444	2,638	7.9	86.8

주: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매입기간은 9월 22일~11월 20일, 포대벼 매입기간은 10월 12일~1월 31일까지임.
 자료: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.

■ 2009년산 농가 재고는 전년보다 많아

- 농업관측정보센터 논벼 표본농가 1,615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2009년 12월 말 농가 재고량은 전년 동기대비 39.3% 많고, 연고미(도시 친인척들에게 보내는 쌀)도 12.0%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이는 2009년산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고, 수확기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산지유통업체들에게 벼 판매를 줄였기 때문이다. 특히 대농 위주로 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
표 3. 2009년산 농가 재고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

단위: %

판매량	연고미	자가소비	재고량
-3.0	12.0	1.0	39.3

주: 2009.12.28~2010.1.8 농업관측정보센터 논벼 표본농가 1,615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.

■ 2010양곡연도 민간부문 시장공급량은 전년보다 2.8% 증가 전망

- 쌀 생산과 수입이 늘어 당초 2010양곡연도 민간부문 시장공급량은 전년보다 8.0% 증가한 492만 2천 톤으로 전망되었다. 그러나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평년작을 초과한 물량을 매입하면서, 2010양곡연도 시장공급량은 전년보다 2.8% 증가에 그친 458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.

표 4. 2010양곡연도 민간부문 수급 추정

단위: 천 톤/정곡

	2009양곡연도(잠정)	2010양곡연도(추정)	증감
전기민간이입량(A) ¹⁾	-56	72	127
생산량(B)	4,843	4,916	73
산물벼 방출(C)	10	0	-10
밥쌀용 수입미(D) ²⁾	24	119	94
기타 정부방출량(E) ³⁾	418	422	4
정부매입량(F) ⁴⁾	400	370	-30
시장격리(농협)(G) ⁵⁾	100	340	240
기본감모 · 종자 · 기타(H) ⁶⁾	282	237	-45
시장공급가능물량 (A+B+C+D+E-F-G)	4,456	4,582	125

주: 1) 2010양곡연도는 10월 말 기준 농협 재고 35,721톤, 통계청의 민간RPC(임도정 포함) 재고 36,114톤 조사치를 합한 것임.

2) 2010양곡연도 밥쌀용 수입미는 2010년 도입량 79,810톤과 2009년 재고 38,794톤을 합한 수치임.

3) 정부 수급관리계획량(군관수용, 민수용, 주정용을 제외한 가공용, 공공용) 중 산물벼 방출과 밥쌀용 수입미를 제외한 수치임.

4) 정부의 공공비축 매입량임.

5) 정부가 농협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임.

6) 기본감모는 생산량의 4%를 적용한 것임.

■ 2010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은 전년대비 5.7~8.5% 하락할 듯

- 사상 최대의 풍작으로 큰 폭의 쌀 가격의 하락 요인이 발생하였으나,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로 시장 유통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2010양곡연도 수급상황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. 이 경우 2010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은 14만 3천원~14만 8천원/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이는 전년대비 5.7~8.5% 하락한 수준이지만, 2009년산 수확기보다는 0.6~3.7% 높은 수준으로, 2010양곡연도에는 계절진폭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. 정부는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은 시장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한 방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. 이러한 조치는 2010양곡연도 쌀 가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.

표 5. 2010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 전망

양곡연도	2009	2010	증감률(%)
연평균 가격(원/80kg)	15만 7,016원	14만 3천원~14만 8천원	-5.7~-8.5

주: 가격 신축성 계수는 1.4~1.7, 쌀 소비량은 1.4~2.4% 감소할 것으로 가정함.

2010년산 재배의향면적

■ 2010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1.1% 감소한 91만 5천ha 전망

- 2010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1.1% 감소한 91만 5천ha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지역별로 보면, 경기·강원은 전년대비 2.3%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크고, 충청과 호남이 1.0%, 영남이 0.4%의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품종별 재배의향면적은 조생종이 전년대비 4.6% 감소, 중/중만생종은 0.7%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조생종 면적 감소폭이 중/중만생종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전년에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낮았고, 쌀벼 가격이 높아 중산간지역의 농가들이 쌀벼를 재배하려는 의향이 높았기 때문이다.

표 6. 2010년산 벼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 증감률

단위: %			
	조생종	중/중만생종	계
경기·강원	-2.1	-2.4	-2.3
충청	-8.9	-0.6	-1.0
호남	-8.0	-0.5	-1.0
영남	-4.5	-0.1	-0.4
전국	-4.6	-0.7	-1.1

주: 2009.12.28~2010.1.8. 농업관측정보센터 논벼 표본농가 1,615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.

■ 2010년산 쌀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22.4% 증가할 듯

- 쌀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2.4%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. 이는 쌀벼 가격이 높아 특히 조생종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작목전환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.
- 전국적으로 쌀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가운데 충청·호남이 각각 25.8%, 25.7%로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. 영남은 17.0%, 경기·강원이 15.8%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.

표 7. 2010년산 쌀벼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 증감률

단위: %				
경기·강원	충청	호남	영남	전국
15.8	25.8	25.7	17.0	22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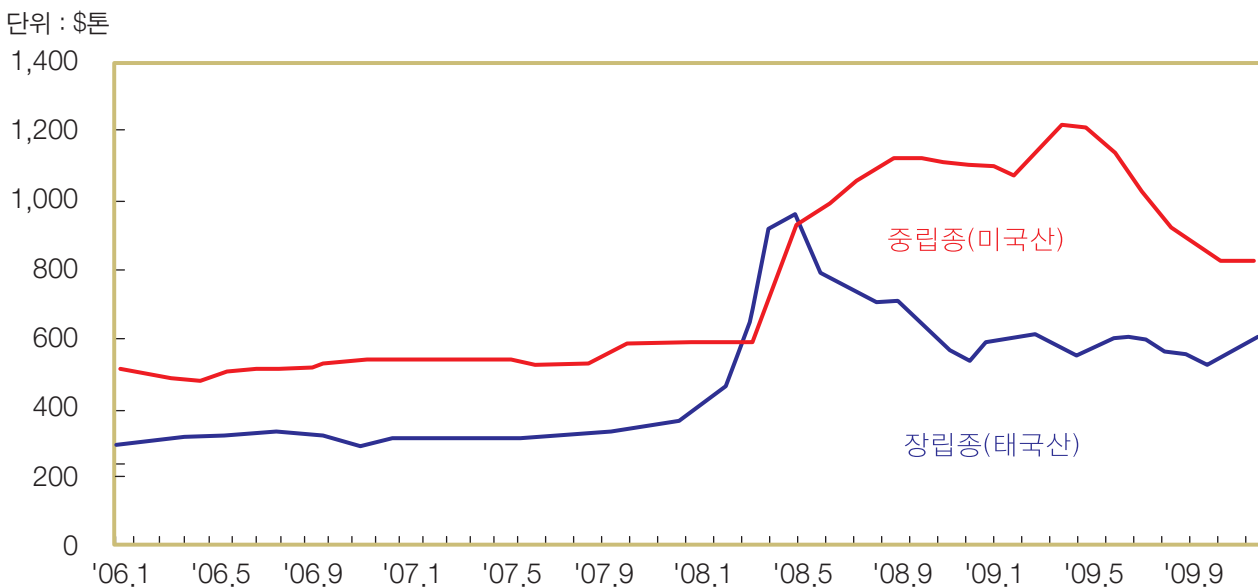
주: 2009.12.28~2010.1.8. 농업관측정보센터 논벼 표본농가 1,615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.



■ 국제 장립종, 중립종 쌀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보합세 유지 전망

-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2009년 들어 톤당 590달러 내외 수준을 보이다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. 하지만 11월에는 전월대비 4.9% 상승한 톤당 538달러를 기록하였다. 최근 장립종 쌀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인도의 강우량 부족, 필리핀의 태풍 피해 등으로 자국내의 쌀 생산이 크게 감소하여, 11월 이후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
- 장립종 쌀의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인도 등의 생산이 감소하고, 이들 국가의 기말재고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, 장립종 쌀 가격은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.
- 미국 캘리포니아의 중립종 쌀 가격은 2009년 4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, 11월에는 전월대비 3.9% 하락한 톤당 816달러 수준을 보였다. 이처럼 4월 이후 중립종 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미국 남부지역의 중립종 쌀 재배면적이 늘었고, 캘리포니아의 중립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.
- 미국의 중립종 쌀 생산이 늘었지만, 이집트와 중국정부가 국내 식량의 가격안정과 공급확보를 위해 여전히 쌀의 수출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어, 중립종 쌀 가격은 앞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그림 3. 국제 쌀 가격 변화추이



주: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1등급, 장립종은 태국산 100% B등급임.
 자료: USDA, Rice Outlook, RCS-09i, December, 11, 2009.

■ 2009년 밥쌀용 수입쌀 판매율 43.9%, 판매실적 전년보다 크게 저조

- 중국산 1등급과 미국산 1등급 판매율은 각각 50.8%, 74.5%를 보였으며, 미국산 3등급은 10월 22일 첫 공매 후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. 중국산 3등급도 거래가 전혀 없다. 2009년 초기에는 국제 쌀 가격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도입가격 상승 등 제반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입쌀 가격이 상승하였다. 이에 따라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줄어들어 수입쌀 수요가 감소하였다.
- 수입쌀 판매실적이 좋지 않자 2009년 4월 말 이후 수입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국내산과 가격차가 늘어났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재고가 많아 국내산 쌀 가격이 하락하였고, 원산지 표시제 등으로 대형 수요처뿐만 아니라 중·소형 식당들도 수입쌀 이용을 꺼렸기 때문에 수입쌀 판매율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.

〈2009년 밥쌀용 수입쌀 판매결과('09. 12. 30)〉

단위: 톤, %

구 분	밥쌀용 수입쌀				
	도입량(A)	판매량(B)	잔여량(A-B)	판매율(B/A)	
중국산	1등급	26,349	13,388	12,961	50.8
	3등급	15,717	0	15,717	0.0
	소계	42,066	13,388	28,678	31.8
미국산	1등급	15,191	11,311	3,880	74.5
	3등급	3,798	974	2,824	25.6
	소계	18,989	12,285	6,704	64.7
태국산	1등급	2,000	2,000	0	100.0
합 계		63,055	27,673	35,382	43.9

자료: 농수산물유통공사.

「쌀 관측」 봄호 예고 (예정일자: 2010. 5. 17)

내용: 이양의향면적, 수급동향/전망, 소비동향/전망, 재고동향/전망, 가격동향/전망, 국제수급 및 가격동향이 「쌀 관측보」는 인터넷(<http://www.krei.re.kr>, <http://aglook.krei.re.kr>)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 「쌀 관측보」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「질의응답」을 선택한 후 「글쓰기」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 홈페이지 <http://www.krei.re.kr> TEL: 02)3299-4261 FAX: 02)965-6893

담당자: 허 덕(huhduk@krei.re.kr), 최익창(cic@krei.re.kr), 승준호(jhseung@krei.re.kr)

이 「쌀 관측」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가 쌀 관련 가격, 재고 통계자료를 수집·분석한 후, 농업과 통계 전문가들의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과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